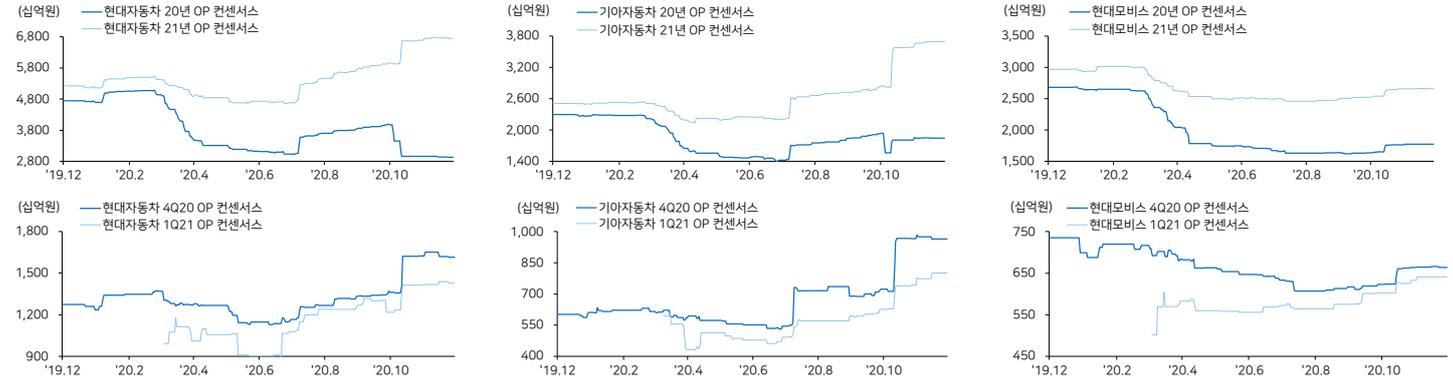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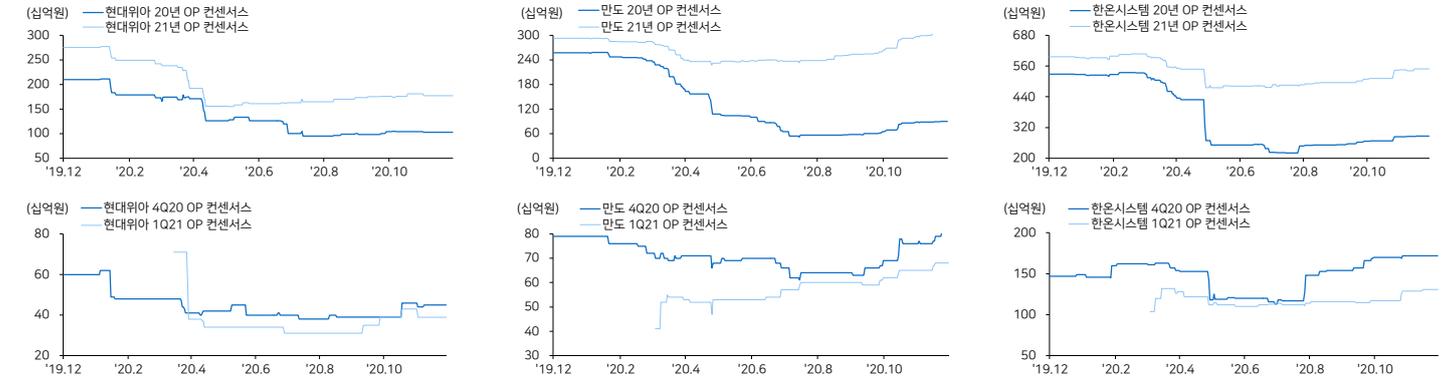


커버리지 컨센서스 추이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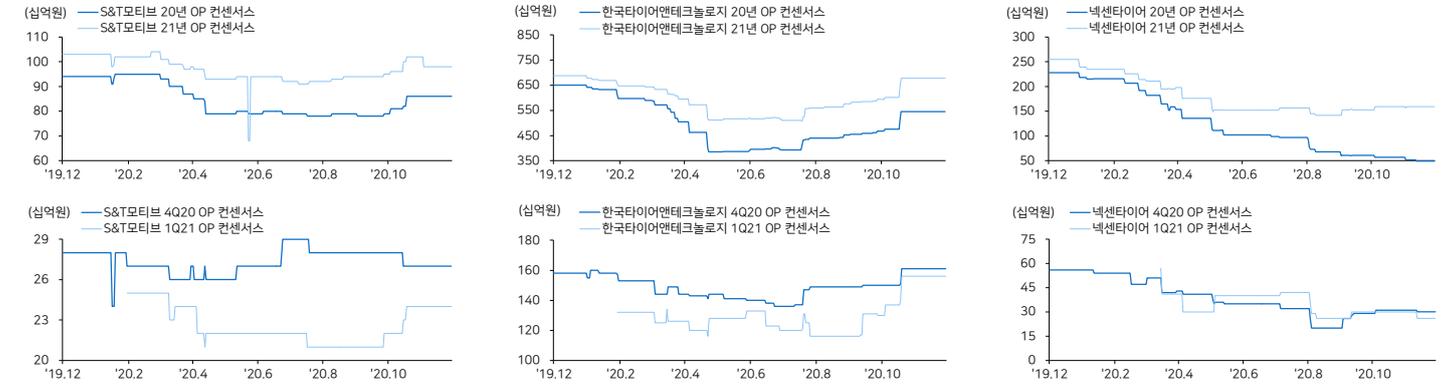
현대차 / 기아차 /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 만도 / 한온시스템



S&T모티브 / 한국타이어 / 넥센타이어



자료: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유럽 CO2 배출 과징금 안 낼 것 기아차, 친환경차 전환에 자신감 (더그루)

기아차가 EU의 CO2 배출 규제 관련,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침. 기아차 이베리아법인 최고경영자(CEO) 에 두아르도 디바르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아차는 앞으로 계속 EU의 CO2 배출 규제에 따른 과징금을 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https://bit.ly/3p5cKro>

현대차, 카라이프 시장 공략... 디지털기 기반 대리, 세차까지 (전자신문)

현대차그룹이 완성차 판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제휴해 차량 관련 서비스를 확장하며 카라이프 시장 공략에 나선. 차량 관련 소비자 생활 전반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자율회 효과를 극대화 하려는 전략으로 풀이 됨.

<https://bit.ly/3nmhYMC>

현대차그룹 미래 짊어진 현대글로비스 *어게 무겁다* (뉴스핌)

배터리 리스, 수소연료 차량에 이어 로보틱스까지 현대차그룹의 신사업이 현대글로비스에 집중되고 있음. '기업규제 3법' 통과와 맞물려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이 임박한 상황. 현대글로비스의 신사업 진출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

<https://bit.ly/34guPbG>

전기차 띄우는 중국, 내년 180만대 판매 (아시아경제)

내년 중국의 전기자동차 등 신에너지자동차 판매가 180만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음. 중국은 오는 2035년까지 신에너지차의 신차 판매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 담긴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2.0'을 발표한 바 있음.

<https://bit.ly/3nuh7EQ>

산타페 하이브리드, 내년 미국에서 먼저 출시...국내는 언제? (조선비즈)

현대자동차가 내년 북미와 유럽, 호주에서 주력 SUV인 신형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출시. 국내보다 해외에서 먼저 산타페 하이브리드를 선보이게 된 것. 현대차는 국내 출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

<https://bit.ly/38bQWRJ>

현대차 미래기술을 한눈에... '현대모터그룹 테크' 사이트 확대 (헤럴드경제)

현대차그룹이 기술 경쟁력과 미래 비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커뮤니케이션 채널 '현대모터그룹 테크(Hyundai Motor Group Tech)' 사이트를 확대 개편했다고 16일 밝혔다.

<https://bit.ly/2KaNu1P>

코로나19로 흔들리는 넥센타이어...이자 지급 어려움 없다 (CEO스코어데일리)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넥센타이어가 이자 지급 어려움 없는 것으로 나타남.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의 3분기 이자보상배율 현황을 조사한 결과, 넥센타이어의 이자보상배율은 0.64인 것으로 집계.

<https://bit.ly/2Wsvrj>

화웨이, 자동차 개발 본격화...광저우에 연구센터 설립 (ZD넷코리아)

화웨이가 중국 광저우시에 자동차 연구에 중점을 둔 연구개발(R&D) 기지를 세움. 미국 정부의 제재로 통신 영역 사업에 타격을 받은 화웨이가 자동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연구를 늘려 새로운 돌파구를 삼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음.

<https://bit.ly/38qtfp9>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